

# 부부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형실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chool Adjustment for Adolescents

Hyong-Sil Lee

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남녀 청소년 482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부부갈등은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남녀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부부갈등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부부갈등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 개인과 가족관계에 대한 개입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부부갈등, 가족,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This study used data collected from 482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re were sex differences in self-esteem of adolescents. For both male and female adolescents, marital conflict was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s on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was found to be positively influenced by self-esteem. Marital conflict had negative direct effects on school adjustment only for male adolescents. Results indicated that self-esteem mediated in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chool adjustment for male and female adolescents.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associations among marital conflict, children's self-esteem and adjustment in school contexts were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s, Marital conflict, Family,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 1. 서론

학교는 청소년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물며 생활하는 곳이자 청소년의 인격형성 및 성격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1], 학교생활적응은 학교환경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고,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킬

\*Corresponding Author : Hyong-Sil Lee (hslee97@hotmail.com)

Received November 12,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December 6,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으로써 학교환경과 조화를 이루려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이다[2]. 이러한 학교생활적응은 적응의 여러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데, 학교생활적응은 학업성취와 학습노력을 포함한 학업적 적응뿐만 아니라, 행동적 적응, 사회·정서적 적응, 그리고 학교에 대한 태도, 학교환경에 대한 지각정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3].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으로서 청소년 적응 중 중요한 영역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은 이후의 정서적, 심리적, 학업적 기능성 같은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된다[4]. 따라서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이후의 적응 문제를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녀의 학교에 대한 정서적 적응과 학업적 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규명되어왔다[5]. 가족관계 중 특히 자녀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는 부모 간 빈번하고 지속적인 갈등으로[6], 부부갈등은 자녀의 적응을 저해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다[7]. 선행 연구에서는 자녀의 적응에 대한 부부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일관적으로 밝히고 있다[8]. 자녀가 가족 밖의 학교환경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인식하고 반응하는데 부부갈등의 부정적 가족 경험이 지침으로 작용한다[9].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에 노출되는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여 갈등적 행동패턴을 발달시킴으로써 자신이 맺는 다른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10].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11-12] 보고되고 있다. Jung[13]의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부모의 부부간 관계를 친밀하게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았으며, 부부갈등이 더 심각하고 빈번하다고 보고한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14].

한편, 부모가 심하게 갈등을 일으킬 때 자녀는 슬픔, 수치심과 무력감을 많이 느끼게 되며[15], 부모의 분노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게 된다[16].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부모의 갈등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낮춘다[17]. 부부갈등이 자녀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예측한다는 것을 밝힌 장기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부부갈등은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는 만

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임을 알 수 있다[18].

국내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부갈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낮으며[12, 19-20], 부모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된다[22].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신과 타인 및 사회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며,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와 적응 수준이 낮은 성취 행동을 결과한다[23].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또래와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24] 자기 가치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반사회적 행동을 추구하며[25], 도움이 필요할 때 교사에게 요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학교적응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26].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27-30]. Jung[31]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가치감이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쳤으며[32]. 종단연구에서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확인되었다[33]. Park과 Yoon[34]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관련된 환경적 변인보다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이 초중등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을 11년 동안 장기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26], 자아존중감은 학업중단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부부갈등이 자녀 적응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이[5-10] 이루어졌지만, 부부갈등이 어떻게 자녀의 적응을 결과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부부갈등과 자녀의 적응 간 관련성에서의 매개역할을 통해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다. 부부갈등은 자녀의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며,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학교적응의 관련성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이제까지 부부갈등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요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행해져 왔으나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는 부족하며, 더구나 성별에 따라 이 과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부 간 갈등의 심각도가 점차 증가하여 초기 아동기부터 초기 청소년기 사이에 극에 달한다[35]. 이에,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심해지는 초기 청소년기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자녀가 인식하는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개인내적 요인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련 과정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였다.

- 첫째, 부부갈등, 자아존중감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남녀 간 차이가 있는가?
- 둘째, 부부갈등, 자아존중감 및 남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련성은 어떠한가?
- 셋째, 부부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에 있는 4개 중학교 3학년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548부의 질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질문지를 제외한 후 482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232명(48.1%), 여학생이 250명(51.9%)으로 구성되었다.

### 2.2 연구도구

#### 2.2.1 부부갈등

청소년이 인지하는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CPIC(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수정하여 만든 Seo[3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개의 문항으로, 부부 갈등상

황에서의 행동과 갈등상황 이후의 행동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부갈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인지하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부부갈등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904로 나타났다.

#### 2.2.2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37]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5문항과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아존중감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며 자신에 대한 존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876이었다.

#### 2.2.3 학교생활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38]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학교교사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생활적응, 학교환경적응을 포함하는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최저 24점에서 최고 120점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953으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먼저 각 변인의 빈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 등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성별에 따른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Pearson's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Baron과 Kenny[39]가 제시한 단계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성별 차이

남녀 청소년에 따라 부부갈등,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Table 1과 같이 t-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집단의 자아존중감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t(480)=2.115, p<.05$ ),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부부갈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480)=-0.888, p=.375$ ).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480)=.464, p=.643$ ).

#### 3.2 부부갈등,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부부갈등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 청소년별 부부갈등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간 상관관계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남자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부갈등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부갈등과 자아존중감( $r=-.334, p<.001$ ) 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575, p<.001$ ).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 $r=-.398, p<.001$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 수준을 높은 것으로 인식한 남자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았고 학교생활적응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남자 청소년은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부갈등과 자아존중감( $r=-.264, p<.001$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 $r=-.253, p<.001$ )간에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608, p<.001$ ). 즉,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한 여자 청소년은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았고 부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경험하였으며,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경우 부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Sex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variables	Total			Male			Female			t
	N	M	SD	N	M	SD	N	M	SD	
marital conflict	482	3.738	.831	232	3.703	.836	250	3.771	.826	-0.888
self-esteem	482	3.561	.698	232	3.630	.695	250	3.496	.696	2.115*
school adjustment	482	3.565	.663	232	3.579	.700	250	3.551	.627	0.464

\* $p<.05$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1. marital conflict	2. self-esteem	3. school adjustment
1	1	-.264***	-.253***
2	-.334***	1	.608***
3	-.398***	.575***	1

\*Coefficients below the diagonal are correlations for males; coefficients above the diagonal are correlations for females.  
\*\*\* $p<.001$

### 3.3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부부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39]가 제시한 단계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 청소년 집단 별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 4와 같다.

남자 청소년 집단의 경우 1단계에서 부부갈등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beta = -.334, p < .001$ ), 2단계에서 부부갈등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398, p < .001$ ). 3단계에서 부부갈등과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498, p < .001$ ), 부부갈등의 효과는 3단계에서 2단계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beta = -.231, p < .001$ ). 부부갈등이 직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부갈등이 남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부부

갈등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남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 청소년 집단의 경우 1단계에서 부부갈등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264, p < .001$ ), 2단계에서 부부갈등은 여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253, p < .001$ ). 3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582, p < .001$ ). 독립변인인 부부갈등의 영향은 2단계에서 보다 3단계에서 그 크기가 감소하였고( $\beta = -.100, p < .10$ ), 자아존중감과 동시투입되었을 때 독립변인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p = .056$ ).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부갈등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은 부부갈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경험하였다.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chool adjustment(male)

Step		$\beta$	t	p	$R^2$
1	marital conflict → self-esteem	-.334	-5.382	.000	.108
2	marital conflict → school adjustment	-.398	-6.574	.000	.155
3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498	8.997	.032	.373
	marital conflict → school adjustment	-.231	-4.183	.000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chool adjustment(female)

Step		$\beta$	t	p	$R^2$
1	marital conflict → self-esteem	-.264	-4.312	.000	.066
2	marital conflict → school adjustment	-.253	-4.124	.000	.060
3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582	11.190	.000	.374
	marital conflict → school adjustment	-.100	-1.918	.056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남녀 청소년 482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청소년이 인식한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을 밝힌 연구결과[4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학교생활적응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체적인 학교생활적응에서 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34]와,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에서도 갈등이 적고 학업능력도 뛰어나다는 연구결과[41], 그리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교생활에 더 적응을 잘 한다는 연구결과[42]와는 다른 결과이다.

둘째,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부부갈등은 자아존중감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며, 스트레스에의 지속적인 노출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된다는 연구들[43-44]과 일관적인 결과로, 부부갈등 같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는 부부갈등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며, 이는 자녀의 자신에 대한 가치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셋째,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27-30]와 일치하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신과 타인 및 사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므로써 학교환경에서 또래 및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수업이나 학교 활동에의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감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며 스트레스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45],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부부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남녀 청

소년 집단 모두에서 부부갈등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부갈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이 자아존중감을 낮추므로, 부부갈등이 자녀의 적응에 영향 미친다는 결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이로써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성장기의 가족경험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은 남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부갈등의 정도가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기술이나 사회적인 능력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46]와 일관적인 결과이다. 부부갈등은 자녀가 부모 간의 적대감과 분노를 모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습득하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써[47],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가족경험이 가족 외환경인 학교생활로 전이가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여섯째,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부갈등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부갈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여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되는 과정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가족을 포함해야 한다.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및 가족상담 등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 손상으로 인한 학교생활적응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상담이 학생 개인상담 뿐만이 아니라 가족상담도 포함하도록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부모 간의 심한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위해 부부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상담이나 교육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관계교육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가족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및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 청소년 자녀가 자신의 삶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환경에서의 적응과 관련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자아존중감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개인 내적 요인은 가족경험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경험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 간 부부갈등에 대한 개입을 통하여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 자녀의 가족경험과 개인 내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성과, 또한 성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중 중학교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청소년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갈등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이 관련되는 과정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성별 차이를 비교한 집단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 차이를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1] S. H. Hong & G. H. Chung (2014). The impact of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conflict on school adjustment and self-identity: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father/mother-adolescent closeness gap.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4), 269-290.
- [2] K. L. Bierman (1994). School adjustment. In R. J. Corsini (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John Wiley & Sons.
- [3] H. R. Kim & S. H. Choi (2009).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and school-related factor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0*, 159-182.
- [4] W. Troop-Gordon & G. W. Ladd (2005). Trajectories of peer victimization and perceptions of the self and schoolmates: Precursors to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Child Development, 76*, 1072-1091.
- [5] M. L. Sturge-Apple, P. T. Davies, M. A. Winter, E. M. Cummings, & A. Schermerhorn (2008).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explanatory role of children's internal representations of interparen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44*(6), 1678-1690.
- [6] P. T. Davies, G. T. Harold, M. C. Goetz-Morey & E. M. Cummings (2002). Child emotional security and interparental confli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7*(3).
- [7] E. M. Cummings & P. T. Davies (1994).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35*(1), 73-122.
- [8] C. Buehler, C. Anthony, A. Krishnakumar, G. Stone, J. Gerard, & S. Pemberton (1997). Interparental conflict and youth problem behaviors: A meta-analysi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6*, 233-247.
- [9] J. Cassidy, S. Kirsch, K. Scolton, & R. D. Parke (1996). Attachment and representations of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892-904.
- [10] H. A. Turner & K. Kopiec (2006). Exposure to interparental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order among young adults. *Journal of Family Issues, 27*(2), 131-158.

- [11] Y. S. Kwon & S. H. Jang (2019). The influences of student's dysfunctional family structure, social support, and career though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in middle schools.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6(1), 61-73.
- [12] J. H. Cho (2009). *The effects of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conflict on an their adjustment in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13] Y. J. Jung (1999). *Related variables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14] W. H. Kim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coping with the stress and youth training activ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ungji University, Seoul.
- [15] J. H. Grych & F. D. Fincham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 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1), 215-230.
- [16] J. H. Grych. (1998). Children's appraisals of interparental conflict: Situational and contextual influen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 437-453.
- [17] P. R. Amato (1986). Marital conflict,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hild self-esteem. *Family Relations*, 35(3), 403-410.
- [18] C. McNeal & P. Amato (1998). Parents'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19, 123-139.
- [19] A. G. Kim (2003). The effects of parental conflicts, social supports,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on early adolescents'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3), 351-372.
- [20] J. Y. Kim & Lee H. S. (2010). The effects of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2(1), 21-32.
- [21] Y. R. Park & H. R. Choi (2002).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child's self-esteem, attachment and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3), 741-755.
- [22] A. W. Pope, S. M. McHale, & W. E. Craighead (1988). *Psychology practitioner guidebooks: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Elmsford, NY, US: Pergamon Press.
- [23] A. Di Paula & J. D. Campbell (2002). Self-esteem and persistence in the face of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711-724.
- [24] A. Caspi (1998). *Personality development across the life course*. In W. Dam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311-388). New York: Wiley.
- [25] H. B. Kaplan (1975). *Self-attitudes and deviant behavior*. Pacific Palisades, CA: Goodyear.
- [26] K. Trzesniewski, B. Donnellan, T. Moffitt, R. Robins, R. Poulton & A. Caspi (2006). Low self-esteem during adolescence predicts poor health, criminal behavior, and limited economic prospects duri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2, 381-390.
- [27] Y. C. Kim & M. S. Jung (2012).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social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3, 51-70.
- [28] Y. A. Park (2018). The effect of academic resilience on school life adaptation: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5(2), 275-298.
- [29] J. H. Park & H. M. Yoon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family communic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9, 149-175.
- [30] Y. Jeong & Y. Chun (2010). The pathways from parents' marital quality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in South Korea. *Journal of Family Issues*, 31(12), 1604-1621.
- [31] K. S. Jung (2004). Impact of social relations on youth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1), 235-252.
- [32] J. Juvonen, A. Nishina, & S. Graham (2000). Peer harassment,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chool functioning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2), 349-359.
- [33] H. S. Jwa (2012).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factors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6), 1-28.
- [34] S. H. Park & C. H. Yoon (2013). The effects of personal and family variable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6 and 9th grade Korean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4(3), 147-169.
- [35] H. Y. Jun (2006). *Influence of familial environment variable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Seoul.
- [36] C. R. Seo (2005). *The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individual psychological*



*variables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37]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ce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38] Y. R. Kim. (1993). An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contribution variables towar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kuk University, Seoul.
- [39]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40] K. Y. Kim (2017). *The effects of general family and single parent families on adolescent self-esteem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Seoul.
- [41] Y. J. Lee & K. J. Park (2005), Stressful life experience and protective factors of resilient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1), 329-345.
- [42] J. M. Lee & H. J. Kim (2011). Effects of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ego-resiliency on school adjustment: Perceived by the adolescents child.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8(4), 97-120.
- [43] D. L. DuBois, S. K. Eitel & R. D. Felner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2), 405-414.
- [44] N. Krause, G. Jay, & J. Liang (1991). Financial strai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e American and Japanese elderly. *Psychology and Aging*, 6(2), 170-181.
- [45] H. R. Choi (2019). Analysis of stress and coping style according to the level of self-esteem of adolescents. *Culture and Convergence*, 41(3), 997-1024.
- [46] J. M. Gottman & L. F. Katz.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47] E. M. Cummings, C. Zahn-Waxler & M. Radke-Yarrow. (1981).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expressions of anger and affection by others in the family. *Child Development*, 52(4), 1274-1282.

이 형 실(Hyong-Sil Lee)

[정회원]



- 1995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부모역할, 가족관계, 심리적 적응
- E-Mail : hslee97@hotmail.com